



뷰티풀 시흥

BEAUTIFUL SIHE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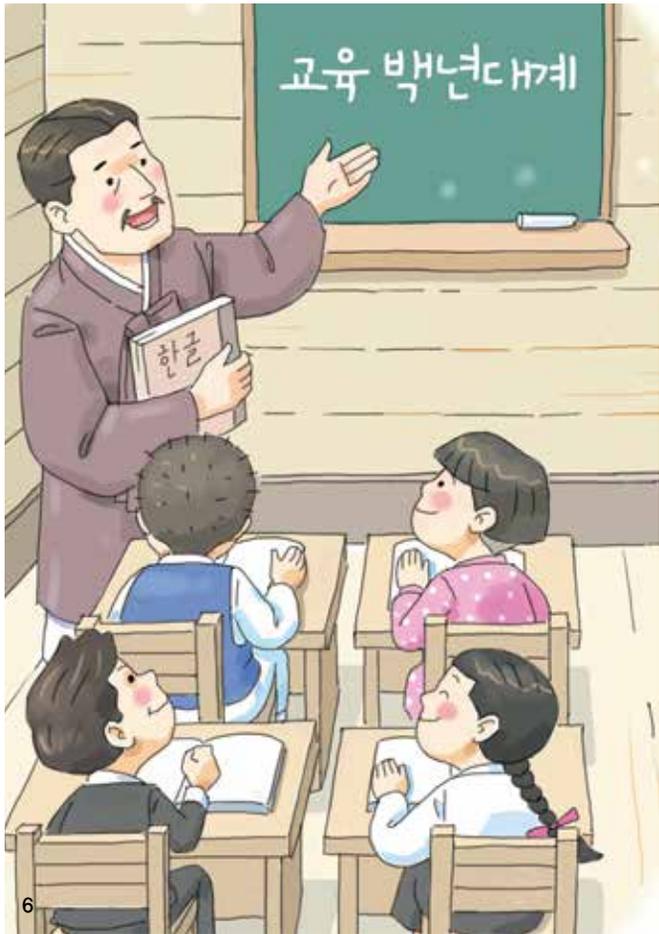
2013. Feb

특별판



시흥 100년의
약속

100 Years
Of Promises
Sihe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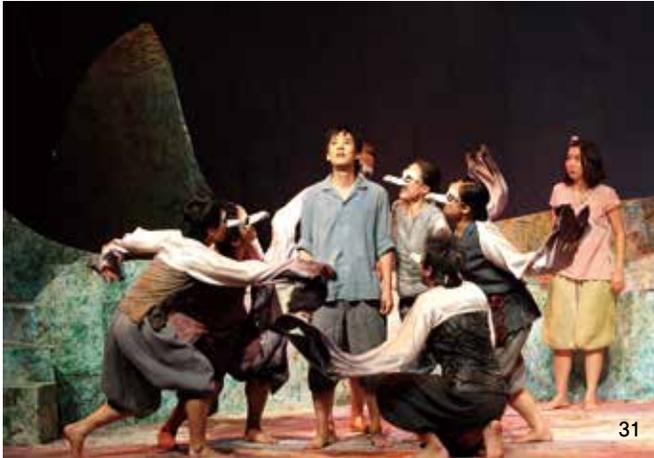


CONTENTS

- 04 시흥100년의 역사적 의미 조명
- 10 시흥100년 기념 엠블럼
- 12 시흥100년의 발자취
- 18 시흥100년을 축하합니다
- 24 100년을 산 사람과 100년을 살 사람
- 31 미리 가보는 시흥100년 기념사업
- 36 언론이 본 시흥100년 기념사업



24



31

뷰티풀시흥

BEAUTIFUL SIHEUNG

2013, Feb

특별판

발행처 시흥시
 발행인 시흥시장
 편집인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
 기획 공보정책담당관실
 발간등록번호 2013-5-07
 발행일 2013년 1월 25일
 구독문의 T. 031-310-6725
 편집디자인 코인뱅크 T. 031-404-3110
 인쇄 웨스트코(주) T. 032-423-1988

뷰티풀시흥은 비매품입니다.

뷰티풀시흥은 시흥시 e-book 자료홍보관(<http://ebook.siheung.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 지에 게재된 내용중 일부는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시흥시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시흥100년의 역사적 의미 조명

어려운 시절에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내일을 모색하는 위인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 미래의 꿈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24 /100년을 산 사람과 100년을 살 사람

100년은 긴 시간이다. 한 사람의 생애 전체이며 한 나라의 운명이 몇 번씩 앞치락뒤치락 하는 시간이다. 시흥100년을 맞아, 이 땅에서 100여 년을 산 어르신들은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제 막 꿈을 꾸기 시작한 미래 100년의 주인공들은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듣고 싶었다. 한결 같은 성실함과 열정으로 살아 온 두 분의 어르신과 재능과 끼로 뚝뚝 뚫힌 세 어린이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31 /미리 가보는 시흥100년 기념사업

‘100년 진척상’이 풍성하다. 시흥과 인연 있는 사람들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 반갑게 조우한다. 시흥의 발자취를 살펴보다가 슬쩍, 미래의 시흥에게 편지도 쓴다. 오래된 가게와 기업의 등을 토닥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책제안도 경청한다. 시흥100년을 맞아 2013년 우리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17가지 기념사업을 살펴봤다.



시흥100년의 약속

초록, 노란, 빨간 세 개의 씨앗이 땅, 물, 햇빛을 만나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한그루 나무가 되었다.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듯
작은 꿈도
소중히 키우는 시흥!



과거 100년의 지혜 미래 100년의 가치가 만나 시흥 100년을 만든다

글 편집부 일러스트 김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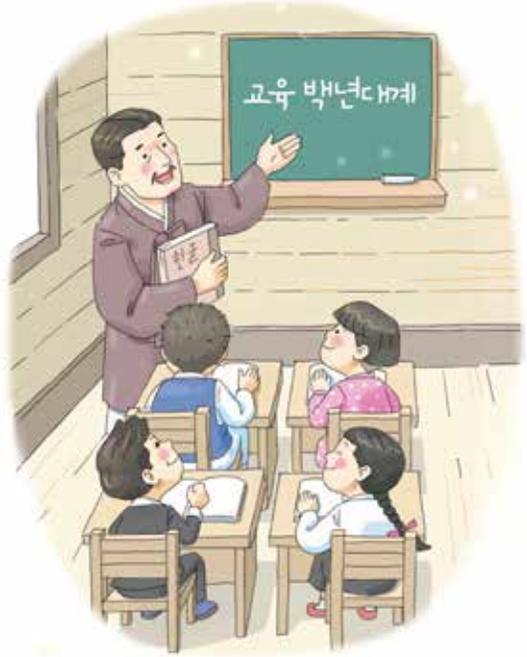
어려운 시절에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내일을 모색하는 위인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 미래의 꿈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4년은 암울한 일제강점기였다. 시흥100년이 시작된 해이며 주시경 선생이 주도한 조선어강습원 ‘한글배곧’이 그 이름을 역사에 올린 해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생명력 가득한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셈이다. 누군가는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우겠냐며 외면했다. 누군가는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씨앗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이미 나무가 될 굳은 약속을 한 셈이라며 꿈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First Dream

첫 번째 꿈

‘배우면 삶이 달라진다.’ 주시경 선생은 100년 전 이런 마음으로 우리글, 우리의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강습원을 열었다. 길고 복잡한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배우는 곳’이라는 의미의 ‘한글배곧’이면 족하다고 생각했다.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공부했다. 씨앗이 무럭무럭 자랐다.



Second Dream

두 번째 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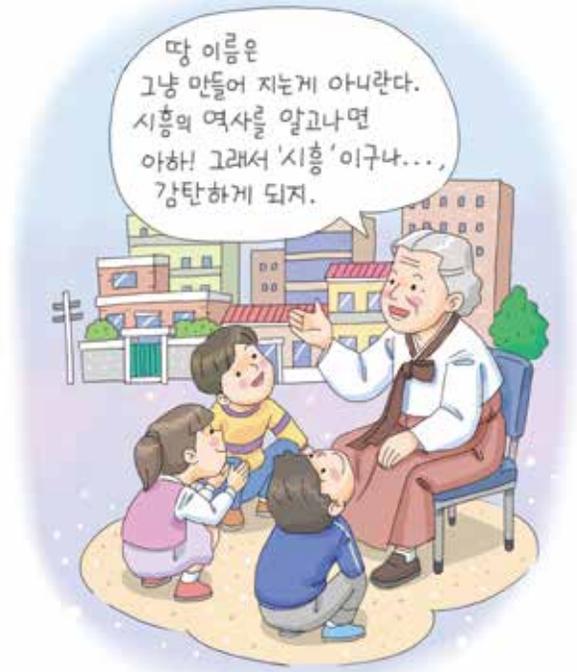
100년 후의 사람들은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다. 먼저 꿈을 꾸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한 번 멋진 도전에 나설 수 있었다. 미래 100년을 위한 또 하나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다.

2013년, 시흥이 심은 씨앗은 성장과 경쟁, 속도의 가치가 아니다. 생명과 참여, 분권의 씨앗이다. 자연을 지키고 시민의 꿈을 응원하고 미래를 견인하는 씨앗이다. ‘나보다는 우리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나와 다른 사람도 우정과 환대로 안아주는 공동체의 씨앗이다. 미래 100년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직한 나무가 될 생명의 씨앗이다.



100세 ‘분이 할머니’가 들려주는 시흥100년 이야기

내 이름은 분이야. 봄이 오면 내 나이 딱 100살. 어때, 놀랍지? 어, 저기 꼬맹이 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네. 참말이라니까. 나는 1914년 봄에 태어났어. 모두들 나를 ‘분이 할머니’라고 부르지. 나는 이 나이에도 이름 불리는 게 좋아. 사람이든, 꽃이든, 땅이든 모두 이름이 있잖아. 이름 없는 존재는 없지, 안 그래?



땅이름이 거저 주어지는 줄 알아?

이제 시흥이야기를 해볼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이름 ‘시흥(始興)’ 참 좋지. 한자뜻 그대로 풀이하면 흥이 일어나는 곳이니깐 이것만큼 좋은 이름이 없지. 그런데 시흥이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그 사연을 듣고 나면 더 재밌어. 아마 시흥에 대한 애정이 샘솟을 걸. 잘 생각해봐. 마음속으로 사모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됐을 때의 기쁨 말이야. 이름이란 그런 힘이 있거든. ‘시흥’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긴 건 아주 아주 오래 전 일이야.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200년도 전에 ‘시흥현’이라 불리는 지역이 있었어. 그게 시흥이 지명으로 불린 시초지. 그럼 천년도 더 전에는 어떤 이름이 쓰였냐고? 그게 참 재밌어. 고구려 때는 시흥을 잉벌로(지금의 서울시 금천구 지역)라고 불렀다고 하지. 잉벌노는 ‘뺨어나가는 땅’이라는 뜻

으로, 우리말로로는 ‘늬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늬내 길이라는 이름도 이러한 뜻을 담아 지었다고 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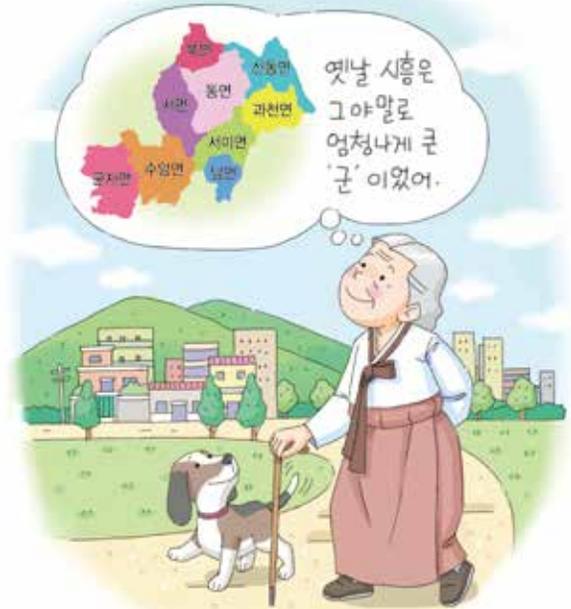
땅이름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비로소 인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땅이름엔 땅의 생김새랑 특성, 문화적 특성까지 다 담겨있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간혹 땅이름만 듣고는 “아이고, 거기 그 동네 미래가 보이네, 보여” 하는 말을 미신이라고 몰아붙이지는 마. 그러면 좀 억울하지. 이제부터 얘기하는 시흥의 역사를 듣고 나면 말이야, ‘시흥’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참 잘맞는구나 싶을 걸. 시흥이 얼마나 넓었는지도 알게 될게야.

나 태어난 1914년, 시흥이 엄청 커졌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흥'이라는 명칭은 1795년 정조임금 시절에 금천현을 시흥현으로 개칭하면서 붙여진 이름이야. 그때 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냐고? 뚝! 역사책은 괜히 있는 줄 알아? 1912년까지만 해도 시흥군 행정구역은 군내면, 동면, 서면, 상북면, 하북면 등 6개면 22개 동리로 이루어져 있었지. 지금의 우리시는 아직 들어가기 전이지만, 영등포를 중심으로 현재의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와 경기도 광명시 그리고 안양시를 포괄한 지역이었어.

그러다가 말이야, 오랜 세월 유지되던 행정구역이 1914년에 와서 큰 변화가 일어나. 그래, 바로 이 '분이 할머니'가 태어난 그 해에 말이야. 막막하기 짝이 없던 일제강점기였지. 일제는 전국에 있는 여러 군현을 통폐합 했어. 경기도만 하더라도 교동, 교하, 적성, 영평, 죽산 같은 데가 이때 통폐합 되고 말았지. 지금 우리시 중에서 남쪽 지역은 안산군에 속해 있다가 이 때 수암면, 군자면으로 통합되어 시흥군에 들어갔어. 이렇게 해서 시흥군은 북면, 신동면, 동면, 서면, 과천면, 서이면, 남면, 수암면, 군자면으로 구성된 거라니까.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을 기점으로 시흥은 9개 면에 83개 동리를 갖춘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군이 됐어. 오늘날의 서울 남부지역과 한강 이남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으니까 말이야. 이때부터 100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경기문화재단이 만든 '경기도이야기'라는 자료를 보면 말이지, 1914년 당시 시흥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과천의 영역이 서울의 잠실까지 미치고 안산의 영역이 오이도에 이르므로 서울 잠실역에서 2호선 전철을 타고 사당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여 오이도 종점까지 시간반 더 걸려간들 당시의 시흥



군내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야. 어때?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비교하니 이해하기가 쉽지? 그러면 그 후 100년의 시흥역사를 계속 살펴볼까? 1930년대 말에 시흥군은 8면 74리로 축소되고 1963년에는 의왕면이 새롭게 시흥군에 편입돼. 그러다 시흥군이 또 한번 행정구역에 큰 변화를 맞이한 건 1970년대에 들어 와서야. 1973년에 안양읍이 분리돼 시로 승격했고,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우리시 북쪽 지역인 소래면이 시흥군으로 편입해서 한 식구가 되었어. 이렇게 분리과정을 계속하다가 1981년에는 서면이 광명시로, 1986년에는 과천면이 과천시로, 1989년에는 군포읍이랑 의왕읍이 각각 분리돼 군포시, 의왕시로 승격하지. 물론 시흥도 1989년에 시로 승격해. 시승격을 지켜보면서 괜히 내 가슴이 뭉클했어. 글썄, 뭐랄까? 우여곡절 겪으며 나와 함께 한 시대를 산 이 땅이 대견했지. ‘대군(大郡)’ 시흥은 이렇게 경기도 6개시, 서울특별시 6개구를 분가시켰고 우리시는 끝까지 ‘시흥’이라는 이름을 지킨 거야.

현재 시흥엔 15개 행정동에 4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지? 올해는 시흥100년이 되는 해니까 아마 '흥'겨운 일이 더 많을거야. 나랑 같이 잔치를 해야지, 안 그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게 '배곧'이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 건 우리 사는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자는 뜻에서 그런 것만은 아니야. 미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1914년에는 또 한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어. 아는 사람은 모두 알겠지만 주시경 선생의 '한글배곧'이 탄생한 해이기도 하잖아. 시흥이 한글배곧의 정신을 높이 사 신도시의 이름을 배곧신도시라고 지었다는 소식은 내 진작 들었어. 미래를 향해 성큼성큼 걷고 있는 배곧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시흥100년이 더 의미가 있는거겠지. 최고의 교육·의료도시로 만들겠다고 더 바랄 게 없어. 과거 지혜는 받아 안고, 미래가치는 올곧게 세울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 암, 그렇고 말고, 언제 어느 때고 더불어 사는 삶이 가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좋은 시절 꼭 만들어줘. 나 같은 백발의 호호 할머니도 “호호호” 웃을 수 있게 말이야.

스토리텔링 유서원

'분이 할머니'의 실제 모델은 월곶동에 사시는 100세 최분 할머니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경로당에 마실 다니실 만큼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분이 할머니,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시흥100년의 역사는 시흥시사 및 경기문화재단 문화포털의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시흥 100년의 약속

100 Years
Of Promises.
Siheung

시흥100년의 약속

우리의 미래를 키웁니다

초록, 노란, 빨간 세 개의 씨앗이 땅, 물, 햇빛을 만나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한 그루 나무가 되었다. 시흥이 가진 천혜의 자연을 상징하는 초록 씨앗은 '생명'의 기운을 담고 있다. 시민의 염원과 꿈을 상징하는 노란 씨앗은 '참여'의 정신을 담고 있다. 미래 희망과 발전을 상징하는 빨간 씨앗은 '분권'의 의지를 담고 있다.

생명, 참여, 분권의 씨앗은 약속대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됐다. 이 나무는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 시흥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시흥의 미래이다. 시민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시정철학이다. 미래 100년에도 흔들림 없는 큰 나무 시흥이, 넓고 깊은 그늘과 큰 동치로 모든 시민을 품겠다는 약속을 건네고 있다.

시민 참여로 이뤄진 100년 엠블럼

시흥100년! '배우는 곳' 한글배곧 탄생 100년! 2013년은 시흥100년의 역사가 완성되는 해다. 더불어 미래 100년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1월 2일(수) 시흥시청사 앞에서는 시흥100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100년 기' 게양식이 열렸다. '시흥100년 슬로건 공모전'도 진행돼 전국에서 865건이 접수됐다. 시흥100년 기념 엠블럼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슬로건 공모전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시흥100년 기념 엠블럼은 15개동 1810명의 시민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세 가지 안을 갖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 선호도를 묻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세 개의 씨앗이 한그루 나무로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한 심볼이 747명의 선택을 받아 시흥100년 기념 엠블럼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흥100년에 쏟아진 애정과 바람

시흥100년 슬로건 공모전에 접수된 865건의 작품은 시민이 바라보는, 시민이 바라는 시흥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있다. 아쉽게도 대상작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금상 2건, 은상 1건, 동상 7건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흥시민은 물론 인근 시를 포함하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 시민들이 참여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자연에 반했어요

슬로건 공모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시흥의 아름다운 자연에 주목했다. 생명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답게 접수된 작품들 상당수가 생명, 생태, 자연, 녹색, 에코 등의 단어를 활용한 작품이었다. 서해와 평야, 갯골 등 시흥의 자연환경을 중요한 미래가치로 표현한 응모작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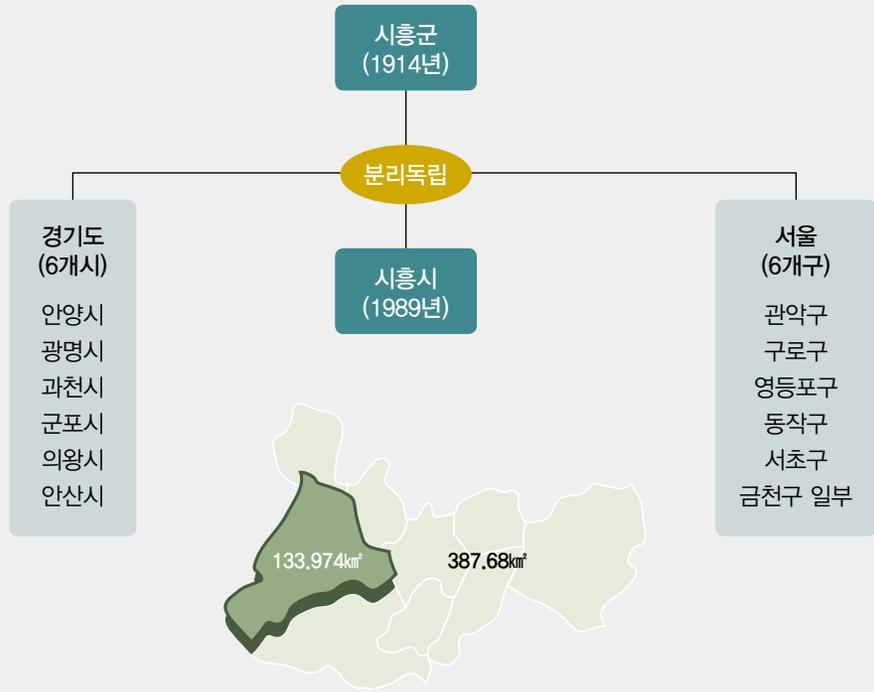
'시'와 '흥'의 도시

시처럼 아름다운, 흥이 나는, 시작되는 도시, 시원시원, 흥미진진, 시민중심, 흥하라 등 시흥이라는 두 글자를 재미있게 배치한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너무 보편적인 표현방식 때문일까? 시흥의 머리글자를 활용한 작품 중 당선작은 없었다.

꿈과 희망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

응모작품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역시 '꿈'과 '희망' '행복'이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이웃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미소 짓게 하는 세 단어가 시흥 곳곳에 퍼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된 공모전이였다.

시흥100년의 발자취



시흥100년!

‘배우는 곳’ 한글배곧 탄생 100년!

2013년은 시흥100년의 역사를 꽃피우는 해입니다.

미래 100년의 시작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과거 100년의 지혜와 미래 100년의 가치로

새로운 시흥100년의 출발을 준비합니다.

시흥시 지역의 3·1 운동(1919년)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간 3·1 운동은 우리시 지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먼저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은 수암면 비석거리 일대였다. 3월 30일, 2,0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윤병소, 홍순철, 류익수, 윤동욱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윤동욱 등은 면사무소까지 군중을 주도하였고, 헌병의 강제 진압으로 격분한 군중들이 면사무소를 습격하려고 하자, 이를 침착하게 제지하며 그 날의 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4월 2일에는 뱀내장(당시 부천군 소래면)에 100여 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으며, 4일에는 거모리에 소재했던 군자면사무소 부근에서 김천복 등이 중심이 되어 수백 명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불렀다. 군자면의 만세운동은 4월 6일, 장현리에서도 권희, 장수산 등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수암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윤동욱 지사(좌)
군자면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유적비(우)

연성음사의 결성과 활동(1920년대)

연성음사(蓮城吟社)는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시흥 지역의 한시 문인들이 결성하여 활동했던 시동호회로 일제강점기 지역 문인들의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연성음사는 1920년에 창설되었지만, 원활히 이어지지 못하다가 1925년 재결성이 이루어졌는데, 「연성음사」, 「연사명첩(蓮社名帖)」, 「연성음사시첩(蓮城吟社詩帖)」 등의 자료가 남아있어 모임의 결성 취지와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선현들의 뜻을 이은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연성음사는 1927년,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어 전국 규모의 현상공모를 하였고, 그 결과 1929년 2월, 「연성음사제일회집(蓮城吟社第壹回集)」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연성음사의 현상공모와 작품집 출간은 1회로 그치고 말았지만, 감시와 검열이 강화되



「연성음사시첩」 서문

었던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시기를 관통하는 지역 문인들의 문학과 사회의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군자·소래염전이 가져온 변화(1920~1930년대)

1925년과 1937년, 각각 시흥 지역의 남서부와 중서부에 만들어진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은 시흥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시흥 지역 해안선의 대부분을 바꿀 만큼 경관적으로도 큰 변화였지만,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업과 환경에 미친 영향 또한 대단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염전은 식민지 수탈의 과정으로 점철된 아픈 역사의 일부이지만, 이 땅을 살아낸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역사이기도 하다. 시흥의 해안 경관을 주도했던 염전과 염업은 1996년, 소래염전의 폐업을 끝으로 이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과거의 한 장면이 되었다.



개발전의 군자염전

포리호 납치월북 미수사건(1960년)

소래염전의 축조와 소래철교의 건설로 앞바다가 막히고, 입구마저 좁아진 포동의 사람들은 환경변화가 초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야 했다. 그러나, 포동에 머물면서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계속되는 어업환경의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였는데, 포리 최초의 동력선이자 마을의 경제적 역량이 결집된 포리호(54자, 약 20m)는 이러한 포동 사람들의 꿈과 의지를 담아 건조한 배였다. 그러나 포리호는 건조된 지 3년 만인 1960년 12월 16일, 집단월북을 기도했던 김사배(金四培) 일당에게 목포 앞바다에서 나포되었고, 결국 기관고장으로 서해에 표류하다가 바다에 침몰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 바 '포리호 납치월북 미수사건'이다. 포리 어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던 포리호가 뜻하지 않은 비극에 휘말리게 되면서 포리 사람들의 땀과 애환도 포리호와 함께 바닷속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포구에 정박 중인 포리호(1950년대)

판자촌에서 싹튼 도시공동체의 미래,

복음자리(1970~1980년대)

1976년 서울의 양평동 지역이 철거되면서 이 지역에 들어왔던 복음자리, 1979년 서울 난곡 등 여러 지역이 철거되어 이주한 한독마을, 그리고 1985년 서울 목동 철거지역에서 옮겨온 목화연립, 지금은 모두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 신천동에는 모두 세 곳의 철거민 이주마을이 있었다. 70~80년대 '도시 미관의 정비'라는 산업화·도시화의 표어 속에서 '철거와 집단 이주'라는 특수한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게 된 복음자리 사람들, 고난과 갈등이 상존하는 환경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시흥시 지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강한 연대감으로 도시공동체의 싹을 틔웠다.

협동조합과 장학회를 중심으로 단오제 등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한 행사들을 이어왔고, 생산공동체, 생활공동체로서의 복음자리가 만들어졌다. 80년대식 도시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택지 지구의 조성이 도시의 첨단화를 주도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복음자리는 단순히 사라진 옛 마을 이상의 의미를 묵직하게 전해주고 있다.



복음자리 신축공사(1977년)



시흥시청 개청(1989. 1. 5)

대야~소사간 도로개설공사 기공식(1990. 12. 12)

제1대시흥시의회 개원(1991. 4. 15)

시흥시청 개청(1989년 1월 5일)

1989년 1월 1일, 시흥군에 속해있던 소래읍, 수암면, 군자면이 시흥시로 승격했다. 시 승격 4일후인 1월 5일 현재의 시흥시보건소 자리에 시흥시청사가 문을 열었으며 시흥시청 개청식을 가졌다. 시 승격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시흥의 잠재력을 깨워 수직의 도약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로 승격된 이후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러시를 이루었다. 시 승격 100일을 기념하는 미스시흥선발대회가 열려 재색을 겸비한 시흥의 여성들이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화려한 자태를 뽐냈고, KBS전국노래자랑이 열린 가스공사 부지에는 건물의 지붕까지 빼곡히 사람들이 차 장사진을 이루었다. 아울러 제70회 전국체전성화가 시흥시를 지나면서 우리시는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시 승격 당시 10만 3천명으로 출발한 시흥시는 20년만에 4배인 40만8천명의 수도권 중견도시로 성장했다.

사회기반시설공사 활발(1990~1991년)

시로 승격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흥시는 우선 지역 간 단절된 벽을 허물기 위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하드웨어로 시도간 연결 도로와, 간선도로의 확충, 상하수도 시설 준공과 함께 연성중림동의 출장소와 동 승격과 같은 지역의 인프라 조성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되었다. 1989년에 포동 상수도배수관 인입공사가 준공식을 가졌고, 1990년에 대야소사간 도로가 기공식을, 1991년에는 포동우회도로도 준공식을 가졌다. 아울러 1991년에는 연성출장소와 중림출장소가 연성동과 중림동으로 승격하였다.

시흥시의회 출범(1991년 4월 15일)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의원선거를 통해 9개동 선거구에서 11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었고, 4월 15일 제1대 시흥시의회가 개원(초대의장 유지홍)했다.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것이다. 한편 1995년 6월 27일에는 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초대 시장으로 당선된 민선1기 정언양 시장이 7월 1일 취임한 이래 현재 민선5기에 이르고 있다.

시흥의 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시작(1992년)

시흥의 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시작은 역시 1992년 설립된 '공영개발사업소'가 기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92년에 월곶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이 각각 기공되면서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시화방조제의 과거, 현재, 미래(1994년)

시화방조제 건설은 우리나라의 토목건설 기술을 과시하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1994년 1월 거센 물살을 단번에 가로막으며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 대부도를 연결하는 길이 12.6km의 시화방조제의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기에 이르렀다. 1987년 6월부터 1994년 2월까지 6년이 넘는 공사 끝에 시화호라는 거대한 인공 호수가 탄생했다. 방조제 건설로 시화호, 방조제도로, 시화북측 간석지와 같은 수변관광자원과 개발가능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시화호는 한때 오염호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통해 이제 이곳에는 매년 여름 요트경기가 열리고 있으며, 북측간석지는 새로운 미래도시의 신화가 될 멀티테크노벨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흥시 신청사 기공(1995년)

우리는 지리적 특성상 인천, 연성, 정왕지역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었다. 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통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1997년 7월 1일 시 중심부인 장현동에 새로운 등지를 만들고 시청사를 이전했다. 이로써 봉사행정과 선진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연성권은 행정타운 기능을 가진 명실상부한 시흥의 중심부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배움의 터전을 짓다(1998년)

시화산업단지 내 캠퍼스를 마련하고 개교한 한국산업기술대는 시흥지역 내에 설립된 최초의 대학으로 시흥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1999년 이공계 전문대학인 경기공업대학(현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이 개교하면서 시흥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산업기술인력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후 시흥시립도서관이 2000년에 기공하고, 시흥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시흥교육청이 2004년에 개청하게 되었다.



월곶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기공식(1990. 11. 20)
물막이 공사 완공(1994. 1. 24)
시흥시 신청사 기공 (1995)

시흥시-덕주시간 자매결연 조인식(2004. 6. 1)

시설관리공단 창립 기념식(2004. 10. 7)

시화 MTV(멀티테크노벨리)조감도



대외문화교류 시작(2004년)

시흥의 80배에 달하는 면적과 14배의 인구를 가진 중국 덕주 시는 시흥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청 번째 해외도시가 되었다. 2005년 5월 18일 덕주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중국 문등 시(2006.9.6), 미국 로체스터 시(2006.10.17), 일본 하치오지시(2006.11.7)와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였다. 또한 행정, 문화, 청소년 등 각 분야에 걸쳐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시화 MTV 조성 시작(2007년)

2007년 8월 16일 기공식을 가진 시화 MTV(멀티테크노벨리)는 수도권 내 부족한 첨단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시화공단의 환경개선은 물론 침체된 정왕권의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 되었으며, 그 꿈의 실현을 위해 지금도 조성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의료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시작(2009년)

2009년 2월 군자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0년 1월 개발계획승인과 10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배곧신도시(군자신도시의 새 이름)가 시흥의 미래 비전인 교육과 의료산업의 메카를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2012년 11월 2일, 호반건설과 SK건설의 첫 분양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신도시의 꿈이 가시화 되고 있다.



10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 한 시흥



100세를 상수(上壽)라고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나이라는 뜻이죠. 올해로 시흥100년이 됐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시는 경기도 6개 시, 서울에 6개 구를 분가시키고 유일하게 시흥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흥’의 증가인 셈이죠.

100년 전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암울했던 시절 주시경 선생은 조선어강습원 이름을 아름다운 순우리말 ‘배곧’이라 짓고 조국에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군자배곧신도시는 백년대계 교육의 메카로 탄생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2013년은 여러모로 뜻 깊은 한 해이자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시흥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군자배곧신도시가 42만 시민의 염원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흥100년을 맞아 ‘땅·사람·물’을 주제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수많은 가지가 뻗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뿌리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시흥이 서부수도권의 뿌리가 되어 미래 100년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민선5기 시정의 뿌리는 ‘생명·참여·분권’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키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대적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참여행정을 펼치려 합니다.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분권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말까 한 도시”라는 찬사를 받는 방법은 쉽습니다. 한 사람이 42만명처럼 움직이고, 42만명이 한사람처럼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한없이 부드러운 눈송이도 꼭꼭 뭉치면 단단한 눈사람이 되듯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장 김 윤 식

시흥100년을 통한 시흥의 정체성 확립



2013년은 시흥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시흥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통해 시흥의 대내외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재는 뽄뽄이 흩어졌으나 당시 시흥군에 포함되었던 인근시에 그 뿌리를 찾게 하고 “이 땅의 시흥, 100년 역사의 종가집”으로써 42만 시흥시민의 자긍심을 함양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시흥100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미래비전과 시민화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회 차원에서 성공적인 “시흥100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의정 구현”을 목표로 「시흥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기리고,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시 집행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흥의 역사와 문화 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시흥시민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시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도약”을 위한 시흥 역사의 한 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땅의 시흥, 100년 역사의 종가집”으로써의 자긍심을 맘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민 모두가 더 나은 시흥의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역동적인 시흥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의회회장 이기훈

“시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한 도약



2013년은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1914년 3월 1일 당시 과천군과 안산군 일부를 시흥군으로 흡수, 통합한 날로 2013년은 시흥군을 기반으로 한 「시흥100년」이 되는 바로 시흥이 탄생한 지 꼭 100년이 되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시흥시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흥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통해 시흥의 대내·외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재는 뽀뽀이 흠어졌으나 당시 시흥군에 포함되었던 인근시에 그 뿌리를 찾게 하고 “이 땅의 시흥, 100년 역사의 종가집”으로써 42만 시흥시민의 자긍심을 함양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시흥100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미래 비전과 시민화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흥100년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시흥100년 기념행사”는 우리시의 자랑거리이자 시흥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크나큰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회 차원에서 성공적인 “시흥100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의정 구현”을 목표로 「시흥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기리고,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시흥100년 기념행사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를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 집행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흥100년 기념행사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흥의 역사와 문화 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시흥시민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시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도약”을 위한 시흥 역사의 한 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땅의 시흥, 100년 역사의 종가집”으로써의 자긍심을 맘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민 모두가 더 나은 시흥의 내일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역동적인 시흥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흥100년 기념행사 지원 특별위원장



『시흥100년 맞이』기념 시정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흥시가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로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광명시도 한 뿌리로써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더욱 발전하십시오.

광명시장 *오동기*

시흥 탄생 100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뽀아가는 땅, 넓은 땅이라는 뜻을 가진 시흥은 그 넉넉한 품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왔으며, 수도권의 핵심도시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지나온 100년처럼 앞으로의 100년도 시흥시민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시흥시가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로 더욱 웅비하시길 기원합니다.

과천시장 *여인국*



상생의 동반자, 시흥 탄생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년 도시 시흥시가 40만 시민이 하나 되어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시흥·안산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이웃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흥시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산시장 *김철민*



시흥100년 맞이 기념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무리한 자원개발로 자연의 소중함이 절실한 이때 자연과 생태환경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시흥시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도약을 기원합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환*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 '시흥' 탄생 100년을 축하합니다.
시흥시와 의왕시는 예로부터 한 핏줄이었습니다. 그동안 양 시는 중부권행정협의회 회원도시이자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공동현안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우의를 돈독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상호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흥시가 수도권 '중심도시'에서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생태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의왕시장 *김성재*



시흥100년을 맞이하는 기념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깊은 역사와 전통 위에 생명도시로서 시흥시의 멋진 비상과 힘찬 응비를 기원 드립니다.

군포시장 *김재주*

시흥시 100년의 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드는 원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구도 동심협력(同心協力)의 견지에서 시흥시가 미래를 키우는 생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하겠습니다. 계사년이 시흥시의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최성수*

시흥100년을 맞이하는 이 때,

저는 귀하와 42만 시흥시민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흥시와 덕주시는 2003년에 교류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5년에 자매결연도시가 된 이래, 호혜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양측의 우호 관계는 날로 확고하게 다져지고 발전되었으며, 교류의 성과는 부단히 커지고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김윤식 시장님을 위시로 하는 시흥시청의 관심과 지지 아래, 시흥시와 덕주시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와 시흥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시흥시의 내일이 더욱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덕주시청 시장 **진선운**

尊敬的金允植市長：

在始興市 100 周年之際，我謹向您及 42 萬始興市民致以由衷的祝賀。

德州市與始興市於 2003 年開始交流，特別是 2005 年締結友好城市以來，雙方在平等的基础上，以互惠互利為原則，友好關係日益鞏固和發展，交流成果不斷加強和壯大。

我相信，在金允植市長為首的始興市政府的關心和支持下，德州市與始興市的交流與合作將結出更豐碩的果實。

最後，祝願您和始興市民幸福，

祝始興市的明天更加美好！

中華人民共和國德州市人民政府

市長

시흥100년을 하치오지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시는 지난 100년간,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 온 역사와 전통,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으로,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도시의 산업화를 이루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서해안의 중추도시로서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귀시와 하치오지시는 2006년 11월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문화, 스포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민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양시의 발전을 위한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추진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여 김윤식 시장님의 더욱 큰 활약과 시흥시민 여러분들이 다복을 기원드립니다.

하치오지시장 **이시모리 다카유키**

시흥 백년을 맞이하여 저는 덕주(더저우)시와 570만 덕주시민을 대표하여, 시흥시청과 시흥시민에게 심심한 축하를 보냅니다.

백년이라는 역사는 눈부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시흥시청과 시흥시민은 뜨거운 땀과 수고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중에서 시흥이라는 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자원과 친환경의 도시는 한국 최고 수준의 도시로 우뚝 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에 김윤식 시장님께서도 변함없이 두 도시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지하시며, 공동 발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흥시의 내일이 더욱 찬란하고 번영되기를 바랍니다. 시흥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덕주시 서기 **오취훙**

尊敬的金允植市長：

欣逢始興市百年慶典之際，我謹代表德州市及 570 萬德州人民，向始興市政府及始興市民，表示最熱烈的祝賀！

百年歷程，鑄就輝煌。始興市政府及市民用辛勤的汗水，經過不懈的努力，取得了今天舉世矚目的成績。我相信，在未來的發展中，始興這座具可持續發展資源和親環境城市將迅速上升為韓國的頂尖城市。

在此，也希望金允植市長一如既往地關心和支助兩市間的交流與合作，以實現共同發展。

祝始興市的明天更加繁榮、昌盛，

祝始興市民幸福安康！

中華人民共和國德州市

書記

始興市誕生 100 周年、誠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せう。八王子市民を代表いたしまして心からお祝い申し上げます。

貴市はこれまで、市民の皆様によって守り続けてこられた歴史と伝統や美しい自然景観を誇りに、工業団地の造成などによる産業化を経て、大いなる飛躍を遂げてこられました。この 100 周年を機に、韓国西海岸の中心都市として更に発展されるよう期待しております。

貴市と八王子市は、2006 年 11 月に友好交流協定を締結して以来、文化、スポーツなど様々な分野で市民交流が行われてきました。今後も両市の発展に繋がる交流が一層活発にな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希望に溢れる新たな 100 年に向けて、金允植市長のますますの御活躍と始興市民の皆様のお多幸を心から御祈念申し上げます。

八王子市長



100년을 산 사람
100년을 살 사람

100



100년은 긴 시간이다. 한 사람의 생애 전체이며 한 나라의 운명이 몇 번씩 앞치락뒤치락 하는 시간이다. 시흥100년을 맞아, 이 땅에서 100여 년을 산 어른들은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제 막 꿈을 꾸기 시작한 미래 100년의 주인공들은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듣고 싶었다. 한결같은 성실함과 열정으로 살아 온 두 분의 어른신과 재능과 끼로 뽐낼 뭉친 세 어린이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호조별 농사박사, 매화동의 자전거 레이서

아흔둘 이창우 할아버지

글 손보경

매화동 238-4번지. 아흔 둘 이창우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이다. 아직은 기력이 왕성할 당시, 손수 여기에 집을 짓고 칠남매를 키웠다. 1922년 그 자신 역시 칠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온전히 매화동 사람이다. 소래보 통학교 졸업 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직장생활을 한 6년을 제외하고는 이곳을 떠난 적이 없다. 매화동에서 그는 ‘농사박사’, ‘일벌레’로 통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소금 장수며 떡장수, 고추장수 안 해 본 일 없이 부지런히 살았다. 하루 네 시간 이상 잔 적이 없고, 밤을 낮 삼아 일했다니 그 고생과 부지런함을 짐작할 만하다. 가뭄이다, 비가 많이 온다 해서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포기할 때도 할아버지는 철저한 관리와 몸에 밴 부지런함으로 최고의 농작물을 거둬들였다. “호조별에서 농사지으면서 내가 처음 시도한 게 많아.” 할아버지는 이곳에 없는 작물의 종자를 서울까지 나가서 사다 심었고, 시험재배에 성공하면 이웃 사람에게 전수했다. 동네 사람들은 종종 농사박사를 찾아와 묻고 배웠다. 그렇게 땅을 지키며 산 구십 평생. 할아버지의 집 앞에 드넓게 펼쳐져 있는 호조별은 그에게 샅티고 썬터이다. 젊어서는 가족의 생계가 호조별에서의 벼농사에 달려있었고 노년엔 썬터가 돼 주었다. 소작으로 시작한 농사는 땅을 늘려 자식을 거둘 수 있을 정도가 됐고, 일하는 틈틈이 즐기는 자전



거 타기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지 오래다. 할아버지의 자전거 타기를 그저 동네 마실 나가는 수준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굶은 날을 빼고는 매일 자전거를 탔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를 타고 대부도까지 다녀오곤 할 만큼 기력이 좋았다.

그렇게 그는 평생을 매화동에서 살면서 이곳의 산역사가 되었다. 5년 전 정 깊던 아내를 먼저 보내고, 함께 살자는 자식들의 성화를 못 들은 척하며 혼자 살면서도 호조별과 자전거가 있어 외로움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지난해 봄 뇌출혈이 오기 전까지는 농사도 계속 지었다. 앓고 난 후 기력이 쇠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호조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은 부지런함과 여유로운 성품이다. “날 좋은 때는 이제 자전거 타고 동네도 다시 나가고 그래.”

자전거 레이서로 귀환했다는 이창우 할아버지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도 반갑게 들렸다. 어서 봄이와 할아버지의 자전거 바퀴자국이 매화동 구석구석, 호조별 독위에 많이 새겨졌으면 좋겠다.

평양 떠나 두 번째 고향 시흥에 살다

여든셋 김현숙 할머니

글 오안나

김현숙 어르신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들어 보았던 1.4후퇴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평양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꽃다운 그녀는 온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7남매의 장녀인 그녀는 부모님을 따라 남한으로 내려왔으며 이후 인천에 터를 잡았다. 7남매란 대가족이 그 와중에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남한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3대째 내려오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결혼해주면 교회에 꼭 나가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24세에 결혼해서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그러나 남편은 쉽게 교회로 발길을 옮기지 못해 평생 그녀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

남편과 세 아이를 데리고 50여 년 전에 시흥시 신천리로 이사했으며 그로부터 그녀의 시흥 이야기가 시작된다. 은행택지가 조성되기 전 과수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키웠다. 처녀시절 하던 교편을 접은 것을 안타까워하던 남편은 늘 그 꿈을 이루라고 부추겼지만 생업과 자식들 양육에 애쓰다 보니 그 꿈은 저만큼 멀리가고 말았다. 은행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다시 포동으로 등지를 옮겨 남편은 축산업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일을 돕는 틈틈이 교회 봉사를 하며 못다 이룬 꿈을 대신하며 살아왔다.

지금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포리교회 '백합 성가대'의 지휘자로 14년째 봉사하고 있다. 토요일에 모여 연습을 하고, 아예 교회지하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며 주말을 보내고 계신다.

이 시간이야 말로 현재의 어르신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신다.

전쟁과 피난, 굶주림과 풍요로움의 한 세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오신 김현숙 어르신의 삶은 그야말로 한국의 근현대사다. 민족의 크나큰 비극을 겪었지만 가족을 잃거나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 없이 지내온 세월이 그저 감사하기만 하다며 고개를 주억거린다. 여느 어머님과 똑같이 자식들 무탈하니 잘 지내고 손자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마지막 바라는 것이고 더 이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며 손 사례를 친다.

“혈압과 당뇨가 있지만 약으로 조절되는 것 또한 감사요, 다리에 힘이 없으나 아직 혼자서 걸을 수 있음에 감사요, 미흡하지만 성가대의 직분 주심에 감사요, 그 직분 감당케 하심이 감사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요.” 우리가 글자로, 입으로만 익히 알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신다.



셰익스피어와 사랑에 빠진 소녀 노벨문학상을 받고 싶어요

글 유서원

김유솔(12)

큰 눈망울에 또래 보다 훌쩍 큰 키, 차분한 말투, 소녀는 성숙해 보였다. 어쩌면 손에 든 셰익스피어의 ‘햄릿’ 때문인지도 모른다. 봄이 오면 5학년이 되는 김유솔(12·하중동) 양. 초등학생이 어떻게 벌써 그런 고전을 읽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희 담임선생님이 책을 무척 많이 읽으세요. 금요일마다 새로운 책을 소개해 주시는데, 지난 여름에 햄릿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제 너희들도 햄릿을 읽어 볼만 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셰익스피어와 첫 만남을 가진 후, 유솔이는 ‘오셀로’와 ‘리어 왕’, ‘맥베스’와 ‘한여름 밤의 꿈’까지 여러 작품을 읽었다.

“맥베스가 가장 재미어요. 충실한 신하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역자가 되는 맥베스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쏭달쏭 하니까 더 재밌죠.”

내용을 이해했을까 싶었는데 아이다우면서도 제법 의젓한 평이 이어졌다.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단다. 혁신 학교에 다니는 유솔이는 방과 후와 토요일에 학교에서 연극수업도 받



고 있다. 연극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서 희곡 작품을 더 많이 찾아 읽게 된다고 했다.

“연극은 여럿이 하는 놀이 같아서 좋아요. 연극 선생님 그랬어요. 연극은 단지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하고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거래요. 혼자만 잘하면 아무 소용없고, 중요한 건 연극 하는 부원들끼리의 약속이라고 하셨어요.”

유솔이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좋아서 나중에 꼭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글 쓰는 일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을 담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노벨문학상을 받으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제 책을 볼 테니까 엄청 뿌듯할 것 같아요.”

최근 어느 출판사가 주최하는 공모전의 어린이 심사위원에 뽑혔다며 싱글벙글 하던 유솔이가 문득, 머뭇거리며 말했다.

“제 꿈은 작가지만… 음, 연극배우도 하고 싶어요. 햄릿의 오펠리아 역 꼭 해보고 싶어요. 글도 쓰고, 연기도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예술가, 맞아요? 제 꿈은 멋진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소녀는 좋겠다. 꿈이 많아서.

8개국 어린이들과의 대결에서 우승 바둑은 나의 힘

글 최분임

정인수(11)

시흥시를 이끌어 갈 미래의 인물을 인터뷰해 달라는 부탁에 도대체 어떤 인물이 시흥의 희망으로 낙점된 것일까, 궁금증이 일었다. 바둑신동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인지 능곡동 바둑학원 문을 들어설 때까지도 긴장이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스스럼없이 방문객을 반기고 까불거리는 모습의 정인수(11·능곡동) 학생을 마주하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지난 '2010 소년 조선일보배 어린이 기왕전' 유치부 준우승, 2011 '제11회 대한생명배 세계어린이 국수전' 저학년부 우승, '2012 제5회 김삿갓배 전국바둑대회' 학생최강2부 3위를 차지한 상장과 트로피를 펼쳐 보일 때는 국수(國手)의 모습이 얼핏 스쳐갔다. '제11회 대한생명배 세계어린이 국수전'에서 받은 트로피를 들어 보이며 8개국 바둑꿈나무들 중에서 저학년부 우승을 거머쥔 것이라며 차분한 설명을 할 때는 정말 국수(國手)를 마주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뒤이어 이런 큰 상 말고도 집에 상장이 쌓여있으며 자랑을 늘어놓을 땐 또 여지없이 개구쟁이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7살 어린 나이에 엄마 손에 이끌려 바둑을 두게 됐다는 정인수 어린이, 그냥 무조건 재밌고 신났단다. 또래 친구들이 많은 학원도 좋았단다. 바둑을 두면 뭐가 좋냐고 물으니 "원장님은 바둑을 두면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오면 바둑도 두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으니 좋아요. 사모님이 밥도 잘 해 주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 심상한 말투에서 세상 모든 일에서 즐기는 자를 이길 사람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하루에 보통 5시간 이상 학원에 머물며 바둑을 두는데 지루하거나 싫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단다.

그러면서 "제 꿈은요, 프로기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웃는 날이에요.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는 이런 날이 좋아요"라며 마냥 즐거워하는가 싶더니 금세 바둑판 앞 가부좌를 트는 모습은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다. 어린 팔색조 한 마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기분이었다. 곁에 있던 바둑학원 원장 권민 씨는 그동안 키워낸 어린 제자들을 자랑하기 바빴다. 그 중에서도 정인수 어린이에 대해서는 "처음 왔을 땐 산만하고 날아다녔죠. 지금은 집중력도 좋고 다른 학원을 안 다녀도 학교공부도 곧잘 하죠. 바둑이 학업의 기초가 되거든요. 자랑스럽죠"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더 큰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이라며 제자를 뿌듯해했다.

어린 팔색조 한 마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날씨는 많이 풀려 있었다. 겨울 속 보이지 않는 봄의 날갯짓이 힘차게 느껴졌다.

다문화, 다국어의 수다쟁이 세계무대야 기다려

글 오안나

이지현(8)



올해 군서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지현이는 수다쟁이다. 잠깐 동안의 만남에 7년 동안 살면서 기억나는 얘기를 설 새 없이 쏟아놓았다. “학교에 가려고 영어는 엄마에게 배우고요, 수학은 아빠에게 배워요. 그런데 세자리수 더하기는 좀 어려워요”로 시작된 지현이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핑크색을 좋아하고요, 나팔꽃을 좋아해요. 나팔꽃은 중국에서 한번 봤는데 참 예뻐요.” “커서는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싶기도 하고, 장난감으로 요리를 해 보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요리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아빠처럼 화가가 되고 싶기도 해요.” 종알종알 재잘재잘… 빌려간 책을 반납하러 들른 어린이도서관에서 지현이는 크고 두꺼운 식물도감을 집어 든다. 꽃을 유난히 좋아하는 탓에 꽃과 관련된 책보기를 무척 좋아한다. 화가인 아빠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손에 잡은 무언가로 그림도 곧잘 그린다. 아빠의 그림에 대해서 묻자 8살 꼬마아이의 대답치고는 너무나 놀라운 설명을 한다. “집에서도 그리는데 점 같은 게 어질러져 있어요. 유치원 그림처럼 깔끔하게 그려야하는데… 유명한 화가들은 다 그린다 봐요. 색이 있으면 더 예뻐 텐데.” 지현이의 얘기만 듣고도 아빠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막연히 상상이 된다.

지현이의 아빠 이성일(39) 씨는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이며 화가로 활동 중이다. 엄마 김춘화(38) 씨는 아직 중국 국적이다. 지현이의 친할머니가 한국에 계셔서 한국으로의 귀화 결정이 더 쉬웠다고 한다. 거기에는 지현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자랐으면 하는 작은 바람까지 포함됐을 것이다. 지현이가 한국에 온지는 이제 1년 7개월이 되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지현이를 보면 믿어지지 않는다. 또래의 아이들보다도 훨씬 언어구사력이 좋다. 발음 또한 정확하고 표현력도 좋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어가 늘어나는 대신 잘 하던 중국어를 많이 잊어버렸다는 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다문화센터에서 일대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중국어는 반별로 공부를 하고 있다. 지현이 엄마는 이제 부터라도 다시 중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싶다고 했다.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더 나아가 영어권에서도 잘 적응하며 넓게 살아가는 지현이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다.

타 문화권에서 왔다고 친구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얼굴색이 다르다고 무시당하는 일이 지현이 세대에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지현이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충분히 밝고 예쁘게 잘 자라리라 확신할 수 있는 만남이었다.



안락

땅, 물, 사람이 함께 웃는 시흥100년 기념사업

‘100년 잔치상’이 풍성하다. 시흥과 인연 있는 사람들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 반갑게 조우한다. 시흥의 발자취를 살펴보다가 슬쩍, 미래의 시흥에게 편지도 쓴다. 오래된 가게와 기업의 등을 토닥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책제안도 경청한다. 시흥100년을 맞아 2013년 우리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17가지 기념사업을 살펴봤다.



땅

시흥의 발자취를 찾아 떠난다

시흥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의 스토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손 대대로 시흥과 함께 해온 시흥의 땅, 역사와 함께 호흡해 온 사람, 건물, 예술 등 ‘시흥의 발자취 찾기’ 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시흥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시흥100년에 대한 의미를 확산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북돋는 계기를 마련한다.

우리는 시흥 전문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 시 공무원들이 시흥의 역사를 바로 알고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공무원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전문 강사가 들려주는 ‘시흥 역사문화교육’을 수강하고 나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은 쑥쑥, 업무 능력은 팍팍!

시흥100년 타임캡슐

100년 후의 사람들은 시흥을 ‘오래된 미래도시’라고 입을 모을지도 모른다. 우리시대의 지혜가 담긴 유산, 시민들이 소중하게 간직한 물건 등을 기증받아 타임캡슐에 담아 고이 묻어두는 사업을 진행한다. 시민들이 소망하는 미래의 시흥 모습을 기약하는 메시지도 담을 예정이다. 타임캡슐 추진 위원회에서 매설 일자를 정하여 땅에 묻게 되며, 이 타임캡슐은 100년 후인 2114년, 우리의 후손들이 개봉한다. 타임캡슐을 열어 본 미래의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사뭇 궁금하기만 하다.

미래시흥에게 편지를 써 주세요

시흥에 남다른 추억을 갖고 있나요? 미래의 시흥, 어떤 모습이길 바라세요? 시흥의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기억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할 편지를 공모한다. 이 편지는 세월이 흐른 뒤(1년~10년) 편지를 쓴 사람이 희망하는 주소로 우편 발송된다.

시민이 만드는 특별한 정원

시민이 기획하고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가든’이 조성된다. 정원 조성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모집해 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 시흥100년 정원을 조성한다.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원이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과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장,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고민하는 정책학습의 장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 꽃피고 나무 푸른 계절에는 시를 읽거나 토론을 해도 좋을 정원이 시민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럽풍의 아기자기한 정원이 탄생할까, 우리네 선비들이 사랑했던 격조 있는 정원이 만들어질까?

소통과 학습, 운동이 함께하는 정원

시흥100년 정원에는 운동기구도 설치된다. 언제든 만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운동도 하는 커뮤니티 정원으로써 웰빙 트렌드까지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만남의 광장’이 탄생하는 셈이다.

시흥100년 정원에서 감수성과 지적 욕구, 육체적 건강까지 챙겨 보자.

어머, 우리 동네에 이런 이야기가?

두무절이, 수노골, 복음자리... 이 마을들은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을까? 동 이름, 마을 이름의 유래를 스토리텔링해 각 동네 알림 표지판을 세운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마을 이름에 얽힌 전설과 역사자료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시흥을 찾는 관광객들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기억될 마을 이야기가 탄생한다.

시흥의 전통가게(기업)로 인증합니다

시흥과 역사를 같이하며 성장해 온 전통 있는 곳은 어디일까? 시흥의 오래된 가게나 기업, 공장 등을 발굴해 시에서 인증하는 간판을 만들어 준다. 인증 간판을 받은 주인은 자부심이 가득, 가게 앞에 선 손님들은 신뢰와 호기심이 가득!





우리만의 콘텐츠로 경제를 살리자!

우리시의 정체성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시흥의 역사와 문화, 교육과 산업 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해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 바야흐로 좋은 콘텐츠가 훌륭한 자산이 되는 시대다.

연극으로 만나는 호조벌의 역사

시흥의 공간, 호조벌 이야기가 연극으로 만들어진다. 바닷물을 막아 농토로 거듭난 호조벌만의 특별한 이야기는 2013년 시나리오 작업을 거쳐 2014년에 무대에 올릴 목표로 진행된다. 시흥 안팎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줄 '호조벌 주연'의 연극, 기대만발.

시민이 찍은 '시흥100년의 걸음' 사진전

낭만적인 가을, 시흥시청 로비에서는 시민들의 사진전이 열린다. 시흥 사람들의 삶, 풍경, 역사 등을 담은 사진을 접수, 심사를 거쳐 전시한다. 프로작가는 배제하고 시흥의 '보통시민'들이 찍은 작품만 전시하는 이번 사진전은 우리지역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기

회다. 선정된 작품에 대해선 시상금도 준다니, 올해는 우리 모두 사진작가가 돼 볼까?

문화가 꽃피는 거리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었던 재주꾼들은 이제 거리로 나가자. 공연문화에 목말랐던 시민들도 거리에 나가면 된다. 오이도, 월곶 등에 놀러 온 관광객들은 바다와 해산물 뿐 아니라 공연도 즐기고 돌아갈 수 있다. '거리문화 공연'은 이처럼 거리가 문화를 만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거리에 시흥을 알리고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일석이조의 거리공연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나의 살던 고향'으로 초대합니다

고향인 시흥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반가운 얼굴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여러 사정으로 시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시흥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정들었던 이웃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민의 날 즈음에 열리는 '시흥인 만남의 날'에는 시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되새겨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의 날

우리, 미팅할까요?

남녀가 만나 커피 마시는 미팅이 아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식인이 하는 미팅이라면 이쯤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름 하여 '시민참여 21세기 타운 미팅'. 지역의 중요 의제를 놓고 대규모 인원이 함께 참여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다.

신기술을 활용해 시민, 전문가, 행정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토론회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도 이끌어낸다. 참여와 협치의 미팅이 9월 시흥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소년 정책제안 토론회

때론 가슴 뜨끔하고, 때론 놀라움을 안겨 줄 정책 제안 및 토론회가 열린다. 미래 100년의 주인공, 우리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다. 시흥의 미래상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며,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정책에도 반영한다. 나의 제안을 시 정책에 반영하고 상금도 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고딩'들 모두 모여라!

도시에서 캠핑하자

도시 생활이라고 늘 바쁘고 삭막한 것만은 아니다. 여기 도시 속으로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올 여름, 시흥의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공원, 주차장이 캠핑장으로 변한다. 텐트 쳐 놓고 시간만 보내는 캠핑이 아니다. 작은 콘서트와 파티, 에코활동, 건강 프로그램, 시흥100년 기념 문화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즐기는 신개념 캠핑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가족, 이웃들과 최상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문화 캠핑이다.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 우리가 지킨다

영국 사람들은 100여 년 전부터 아름다운 자연과 사적을 보호하기 위해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을 벌였다. 과거의 지혜가 미래가치를 키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흥에서도 경제 논리로 사라져 가는 역사적 사건과 현장, 인물의 발자취, 유물 등을 지키기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본격화 한다. 시는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시민 추천 등을 받아 미래유산 선정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물



언론이 본 시흥100년 기념사업

시흥100년을 맞아 펼쳐지는 다양한 사업이 화제다. 여러 언론은 특히 시민주도형 사업이 많은 점에 관심을 보였다. 100년 사업은 올 한해 시흥 곳곳에서 더욱 다채롭게 전개될 예정이다. 언론이 본 시흥100년 기념사업을 지면에 담았다.

경기일보 2013년 1월 15일

[신년인터뷰] 김윤식 시흥시장 “시흥100년...미래 100년의 꿈 만들것”

“올해는 ‘시흥’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시흥이 수도권 서부지역의 뿌리가 되어 미래 100년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과 주거가 안정된 도시, 환경보존과 일자리가 양립하는 도시, 할아버지·할머니·아빠·엄마·청소년·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생명도시 시흥’ 완성이라는 청사진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김 시장으로부터 지난 1년 시정성과와 새해설계를 들어봤다.

▲지난 해 추진된 역점사업과 그 성과는.

시민의 행복과 시흥의 미래를 위해 열정을 다한 한 해였다.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와 좋은 변화의 조짐들이 있었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시흥 스마트허브 내 시흥 비즈니스센터 준공, 시화종합기술지원센터 유치 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개원으로 경제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194개사 4백89억7천만원 및 특례보증 44개사 58억8천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일자리 4개분야 1천156명, 종합일자리센터, 여성새일본부,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3천909명을 알선했다.

잘사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사업으로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복지사각지대 자격관리 및 서비스연계사업, 행복나눔일터 15개소 운영, 공동육아 나눔터(4개소) 및 가족품앗이(123가정) 사업을 운영하고 시간연장 지정보육시설을 확대해 운영(69개소)했다.

이와 함께 참여와 공감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와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방범 CCTV 24시

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53대 설치, 아동안전 및 다목적 CCTV 설치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올해의 청사진은.

올해는 ‘시흥’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의 시흥시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새로운 100년의 꿈과 희망을 함께 만드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시민이 주인되는 시흥을 만들겠다.

그동안 ‘희망마을만들기’ 방식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해 왔다.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화할 것이다.

특히 시민호민관, 도서관 희망씨, 시민주도 축제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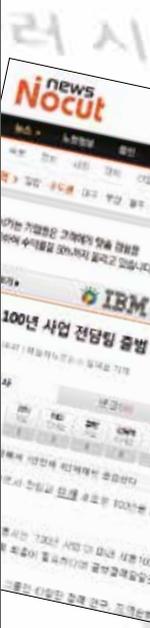
행복나눔일터를 통한 노인소득 증대와, 체계화된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동하고 장애인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영유아 무상보육을 늘려 양육부담을 줄이겠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 돌봄센터형 어린이 집을 시범운영하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흥 경제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 누구나 살고 싶은 시흥을 만들려면 경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군자배곧신도시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올해는 토지분양 특화를 통해 부지매각의 돌파구를 마련해 매화 일반산업단지, 월곶 역세권,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본격화하고 거모2구역, 도일시장 등에 대한 도시재생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올해는 시흥의 미래 10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시흥 100년의 자긍심과 확고한 믿음으로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생명도시 시흥을 위해 1천여 공직자가 앞장 서겠다.

이제는 시민 여러분이 시장이자, 시흥의 주인이다. 시흥의 미래를 위해 42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2013년 1월 4일 데일리노컷뉴스

시흥, 100년 사업 전담팀 출범

과거 100년의 시흥역사 정리와 미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갈 '시흥 100년' 사업의 전담 팀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시흥시는 '100년 사업'이 미래 시흥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역점사업인 만큼 새로운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공보정책담당관실에 시흥100년팀을 신설했다.

시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 연구, 지역순회간담회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시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100년 슬로건 공모, 역사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해 왔다. 지난 2일에는 100년기 계양을 통해 시흥100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은 "새로운 100년의 주인이 시민인 만큼 시흥100년 사업 역시 시민이 주도하는 (가칭)민관 운영위원회가 진행할 것"이라며 "100년팀은 시가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덕철 기자



2013년 1월 3일 헤럴드경제

시민이 주연 '시흥100년' TV광고 눈길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시흥100년' TV 광고(사진)에 시흥시민들이 직접 출연해 눈길을 끌고있다.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3일 40초 분량의 뮤직비디오 영상으로 구성된 '시흥100년' TV 광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엔 시흥 전통연희단 '꼭두쇠', 소래고 밴드부 '하데스', '시흥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출연해 의미를 더했다.

뮤직비디오에 삽입된 노래는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송출된 풀송(full song) 형식의 '시흥100년' 음원으로, 지나온 100년처럼 앞으로의 100년도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광고 영상은 1월 한달간 obs 경인tv(지상파 ch 8-1/케이블 ch2, ch13/Skylife ch31)를 통해 매일 총 3회(11:55 / 19:05 / 21:30) 송출될 예정이다. 또한, G-bus(경기도 및 서울, 인천을 통과하는 노선 2200여개 약 1만여대에서 송출)내 설치되어 있는 영상홍보 TV와 youtube를 통해서도 영상을 접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13년 시흥100년'을 맞아 정책연구, 지역순회간담회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일에는 2013년 시무식과 함께 '100년 기(旗) 계양식'을 가진 바 있다.

이수근 기자



2012년 12월 24일 연합뉴스

'시흥100년' 슬로건 당선작 발표

경기도 시흥시는 24일 '미래 시흥100년'의 모습을 담은 슬로건 공모전 당선작 10편(금상 2, 은상 1, 동상 7편)을 발표했다.

금상은 '녹색누리 시흥100년 행복누리 시흥100년'과 '함께 가꾼 시흥100년, 함께 키울 미래 천년'이 선정됐다. 시는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은 10만원의 상금을 준다.

숨어있는 **시흥** 100년의 역사를 찾습니다

2013년은 시흥100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입니다.

시흥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42만 시민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 시흥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도약의 기반이 될 자료수집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월~연중 상시 수집

수집자료 일반시민(개인), 유관단체 및 기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1914년 이후부터의 각종책자, 상장, 기념품, 사진, 포스터, 영상물, 농사일기, 마을회의록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모든 자료.

수집방법 기증, 대여, 복사 등 모든 방법 가능(우수자료는 포상 예정)
방문요청 시 직접 내방

수집문의 시흥시청 공보정책담당관실 시흥100년팀(031-310-3016~8)

수집자료의 활용

- **시흥역사의 정립**
시흥군으로의 행정개편 이후 100년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립
- **시흥시민의 삶의 특성 이해**
행정구역 변경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성장과 거주민들의 변화상 연구
- **시흥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근거**
시흥100년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정립을 통해 시의 위상과 정체성 제고



타임캡슐에 여러분의 미래를 담아주세요

시민 여러분 2013년,
올해는 '시흥10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시흥100년의 모습과
시민이 기대하는 미래 시흥100년의 모습을
남기기 위해 「미래 시흥100년에 보내는 타임캡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0년 후 개봉하는
타임캡슐에
내만의 보물을 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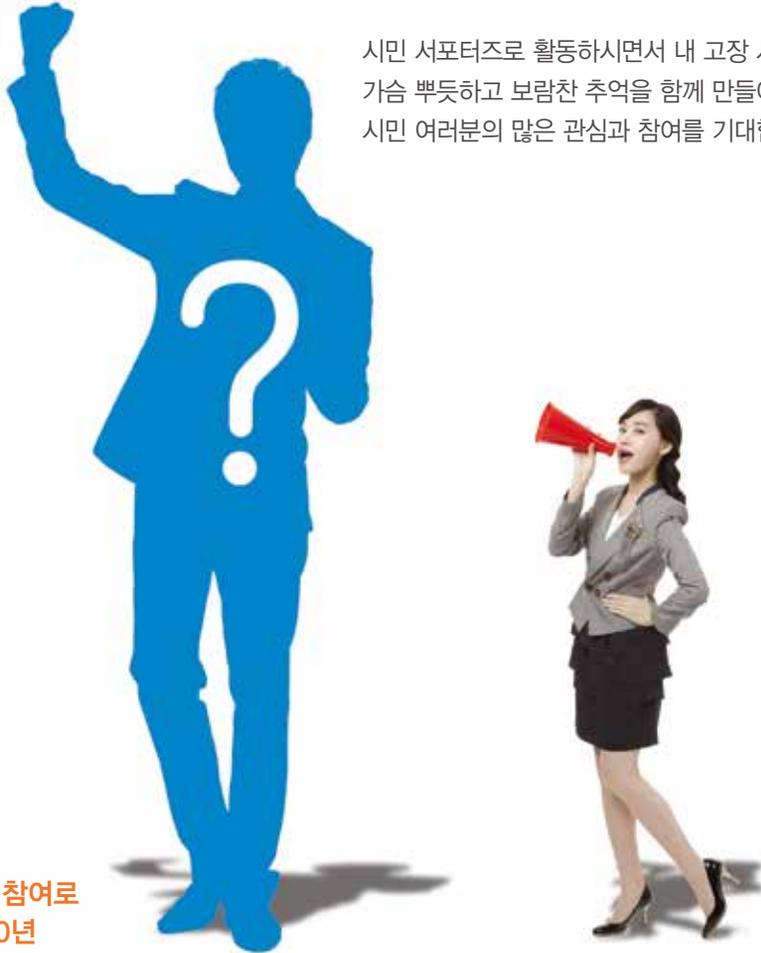
2114년 개봉하게 될 타임캡슐에 담고 싶은
당신의 소중한 물건을 보내주세요.
미래의 시흥100년에 남기고 싶은 의견도 환영합니다.

문의처 시흥시청 공보정책담당관실 시흥100년팀
연락처 031-310-3016~3018



시흥100년 기념사업과 함께 할 시민 서포터즈 모집

시민 서포터즈로 활동하시면서 내 고향 시흥에 대한 애향심과
가슴 뿌듯하고 보람찬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시민의 제안과 참여로 일구는 시흥100년

시흥의 도시브랜드 제고 / 시민 참여를 통한 화합의 한마당
시흥 역사 연구를 통한 정체성 확립 / 새로운 100년 도약을 위한 전기 마련 등

- | **응모기한** | 연중 | **응모자격** | 열정과 재능있는 시흥시민 누구나
- | **참여분야** | 행사·축제 연출, 예술인, 작가, 홍보기획, 역사·문화 연구, 마을 만들기, 도시브랜드, 디자인 기획,
문화관광, 건축가 등 모든 분야 망라
- | **참여방법** | E_mail : gimoona@korea.kr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모집정보」코너에서 소정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제출
- | **문의처** | 시흥시청 공보정책담당관실 시흥100년팀 / 전화 031-310-3016~8